

## 흑산도 대형 간첩선 침투 사건

編 輯 者

1969년 6월 12일 밤 11시 50분 경 이미 남파되어 있는 간첩과 접선 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남 쪽 해안으로 접근해 오는 75톤급 북괴 무장 간첩선 1척을 육·해·공군 합동 작전으로 나포하고, 북괴 무장 특공대 15명을 완전 섬멸했다.

이 간첩선은 동년 5월 30일 중앙 정부부에 검거된 북괴 중앙당 연락 국 소속 대남 무전 간첩 김용구를 대동, 월북하기 위해 6월 11일 진남포를 출발하여 12일 밤 11시 50분 경 3명의 무장 공비가 고무 보트를 타고 섬으로 올라와 접선을 꾀하는 것을 육·해·공군의 긴밀한 합동 작전으로 13일 아침 6시경 이들을 섬멸했다.

나포된 간첩선은 75톤급 시속 35 노트의 15인승 쾌속정으로 화물선 겸

어선 같이 가장, 82미리포 1문, 40 미리포 4문, 14.5미리 고사총 2정, 자동 소총 8정, 권총 5정, 반탱크, 수류탄 2발, 레이더 1대, 반선 탐지기 1대, 측심기 1대, 무전기 2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1969년 6월 13일에 나포된 간첩선에 승선했던 15명 중 달아난 잔당 소탕을 위해 흑산도 경찰 지서에 수색 본부를 둔 군경 및 예비군 합동 수색대는 6월 16일 오후 4시 흑산도 비리에서 북괴 무장 공비 6명을 사살하였다.

이외에도 신안은 섬이 많은 지형적 조건으로 12회의 공비 침입이 있었으나 16명 사살, 13명 검거라는 전과를 올리며, 대침투 작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